

것이 효과가 있는 지 나눌 수 있다."고 코크란은 말한다. 협력은 서로에게 유익하다. 퍼두커는 수년간 수많은 극작가와 감독들을 초청해 왔으며, 코크란은비영리 경영에 대한 우수 사례들을 지역과 전국에 발표해 왔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준다."

퍼두커의 문화 자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www.paducah.travel](http://www.paducah.travel)를 방문하세요.

**로즈매리 스틸(Rosemarie Steele)**

(퍼두커 창의 도시)

## 가브로보, 불가리아

### "미래를 위한 공예" 프로젝트: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박물관으로 꼽히는 야외 박물관의 장인들을 지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위기 초기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하나인 불가리아의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부과된 제한조치로 인한 타격을 가장 크게 받으며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국가 및 지방 정부는 문화부문을 긴급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우선순위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러한 지원은 또한 불가리아의 민속 단지와 박물관들의 전통 공예 장인들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

특히 박물관이 문을 닫았던 2020년 3월, 4월, 5월에는 공예가들이 공예작업과 기술 연마를 포기해야 했으므로 무형문화유산이 사라질 커다란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 당국은 문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었다.

실행된 조치들 중에는 전체 노동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로서, 세금 감면, 고용 보조, 실업자를 위한 혜택 등의 지원들이 포함되었다. 한편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검증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전통 공예 전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도 시행되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민속 복합단지와 야외 박물관을 가진 불가리아의 몇몇 지방 자치단체(입법권 및 집행 권한을 가진 지역 기관)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전통 공예 장인들에 대한 도움과 지원을 문화부에 호소했다. 대부분의 장인들은 소규모의 가족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공예를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미래를 위한 공예" 프로젝트가

약 85,000 불가리아 레브(약 48,771.25달러)의 예산으로 수행되었다. 그 목적은 전통 및 디자인 제품들에 있어 기량이 뛰어난 장인들의 기술을 홍보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문화부처의 재정 지원으로 불가리아 중부에 위치한 지역 민속 야외 박물관인 "에타르"(Etar)에서 진행되었다.

사실상, "에타르"는 가장 인기 있는 문화 관광 명소 중 하나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20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계절에 따라 18~22개의 활발한 장인들의 워크숍과 설비들이 "에타르" 박물관에서 소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박물관 팀에 의해 실행되었는데, 재정은 불가리아 문화부의 예산을 통해 국가가 담당하고, 지역 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가브로보 시가 그 자금을 받아 추진하였다. 이 기금은 "에타르" 박물관의 장인들에게 배분되어 재료 구입, 기술 발표, 문서 작성 팀의 작업 비용과 자신의 인건비 및 사무용품비를 지불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된 장인들은 각각 약 5,000 불가리아 레브를 받았다. 이는 미화 2,877.76달러에 상당한 금액으로, 2-3개월 동안 워크숍을 개최하고 장인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엔 충분한 액수였다. 참고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해인 2021년, 불가리아의 최저 연봉은 650 불가리아 레브(약 374.11달러)였다.

"미래를 위한 공예" 프로젝트의 목표는 "에타르" 박물관 장인들의 기술을 문서화하고 보존하며 홍보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장인들은 전통적인 제품과 디자인 제품을 각각 한 개씩 만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비디오로 기록되었다. 전통 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전 단계에 걸쳐 기록되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일반 대중을 위해 17편의 단편 영화와 예고편이 제작되었다.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장인들의 작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물관 팀은 관광 시장, 컨퍼런스, 공예인 박람회,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와 가브로보 시가 소속된 창의관광 네트워크 등에서 이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완성된 작품들과 문서화된 기록들은 지역 민속

야외박물관 "에타르"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선보이게 될 것이다. 또한 2022년에는 불가리아의 다른 박물관과 문화 기관들 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미래를 위한 공예' 프로젝트는 "공예 규정"(Code Craft)이라는 국제 프로젝트의 제4차 지역간 세미나(2021년 11월 18일~19일)에서 문화역사유산 보존 우수사례로 발표되었다. 동시에, "에타르" 박물관장인 스베틀라 디미트로바(Prof. Svetla Dimitrova) 교수와 "문화 관리" 학과장인 스베틀로자르 토도로프(Dr. Svetlozar Todorov) 박사는 남동유럽 ICOM의 경영 이사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미래를 위한 공예'는 무형문화유산인 기능보유자들에게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공예를 지속적으로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사업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미래를 위해 기록되고 보존되어졌다. 영상 제작을 통해 신세대들의 공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예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불가리아 중앙 및 지방 정부와 '에타르' 박물관의 박물관 전문가들은 박물관에서 일하는 장인들의 소중한 기술을 보존하는 데에 기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결과에 훌륭하게 대처한 조치였으며, 또다른 다양한 상황에도 성공적으로 조정되어 적용될 수 있다.

로시차 비네바(Rossitsa BINEVA)

(공예 큐레이터, "에타르" 박물관)

티호미르 차로프(Tihomir TSAROV)

(홍보, "에타르" 박물관)